



원동면의 유파매미

김민경 

원동면의 유파매미 김민경 

원동면 시화.zip



양귀비의 유파메리

김민갑



☀️ 목차

| | | | | |
|----------------------|-----------------------|--|----------------------|-------------|
| 발간사 | 06 | | | |
| 2025년 시화교실 작품 | 10 | | 2024년 시화교실 작품 | 50 |
| · 엄마는 나 (정미자) | · 나의 마음자리 (김기연) | | · 일출 (하경순) | · 원동면 마을이야기 |
| · 가을 바람 (박귀약) | · 자화상 (정미자) | | · 어머님 생각 (이미순) | · 원동마을 |
| · 나의 의자 (이숙희) | · 목련 (정미자) | | · 원동매화축제 (하경순) | · 함포마을 |
| · 물고기 (김기연) | · 마음길 찾아 (정미자) | | · 화제리 우리 동네 (박귀약) | · 당곡마을 |
| · 기다림 (박화순) | · 잘 살아내는 것 (정미자) | | · 아침 운동 (김종희) | · 신곡마을 |
| · 공짜 (고필숙) | · 보챤 나의 동력 (정미자) | | · 배내골 (하경순) | · 중리마을 |
| · 조용한 자리 (김원희) | · 길 (이숙희) | | · 큰 소나무 (조용현) | · 선장마을 |
| · 살아보면 안다 (최인숙) | · 봄이 오면 나는 (이숙희) | | · 꽃밭 (황연조) | · 내포마을 |
| · 내 마음의 진심 (박화순) | · 살고 싶은 곳 (최인숙) | | · 나의 집 (김기연) | · 영포마을 |
| · 바람이 분다 (고필숙) | · 마음 공부 (이정화) | | · 그리움 (박화순) | · 어영마을 |
| · 유토피아 꿈꾸는 세상 (고필숙) | · 오월 (이정화) | | | · 신주마을 |
| · 회상 (이숙희) | · 행복 (류미자) | | | · 범서마을 |
| · 허수아비 (고필숙) | · 내 인생 겨울의 문턱에서 (이정화) | | | · 외화마을 |
| · 어느 봄날 오후 (고필숙) | · 전원생활 (이정화) | | | · 내화마을 |
| · 강물 (박귀약) | · 겨울 (이정화) | | | · 지나마을 |
| · 나 (정미자) | · 빗방울 (김원희) | | | · 명언마을 |
| · 기도 (정미자) | · 우체통 (김원희) | | | · 토교마을 |
| · 봄이 오면 나는 (김기연) | · 내 마음 반성문 (이정화) | | | · 대리마을 |
| · 시계 (김기연) | · 시집살이 (이정화) | | | · 선리마을 |
| | | | | · 장선마을 |
| | | | | · 태봉마을 |
| | | | | · 늘밭마을 |

「원동의 하루를 담다」에 담긴 마음을 응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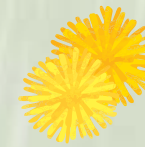
하루의 온도, 계절의 빛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엮은 「원동의 하루를 담다」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화교실은 단순한 문화강좌가 아니라, 주민이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마을의 기록실’이었습니다. 시 한 줄, 그림 한 점에는 원동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오래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만의 감성과 표현을 발견했고, 그것이 모여 원동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웃고 응원해주신 감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의 장을 넓히고, 마을 곳곳의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든든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손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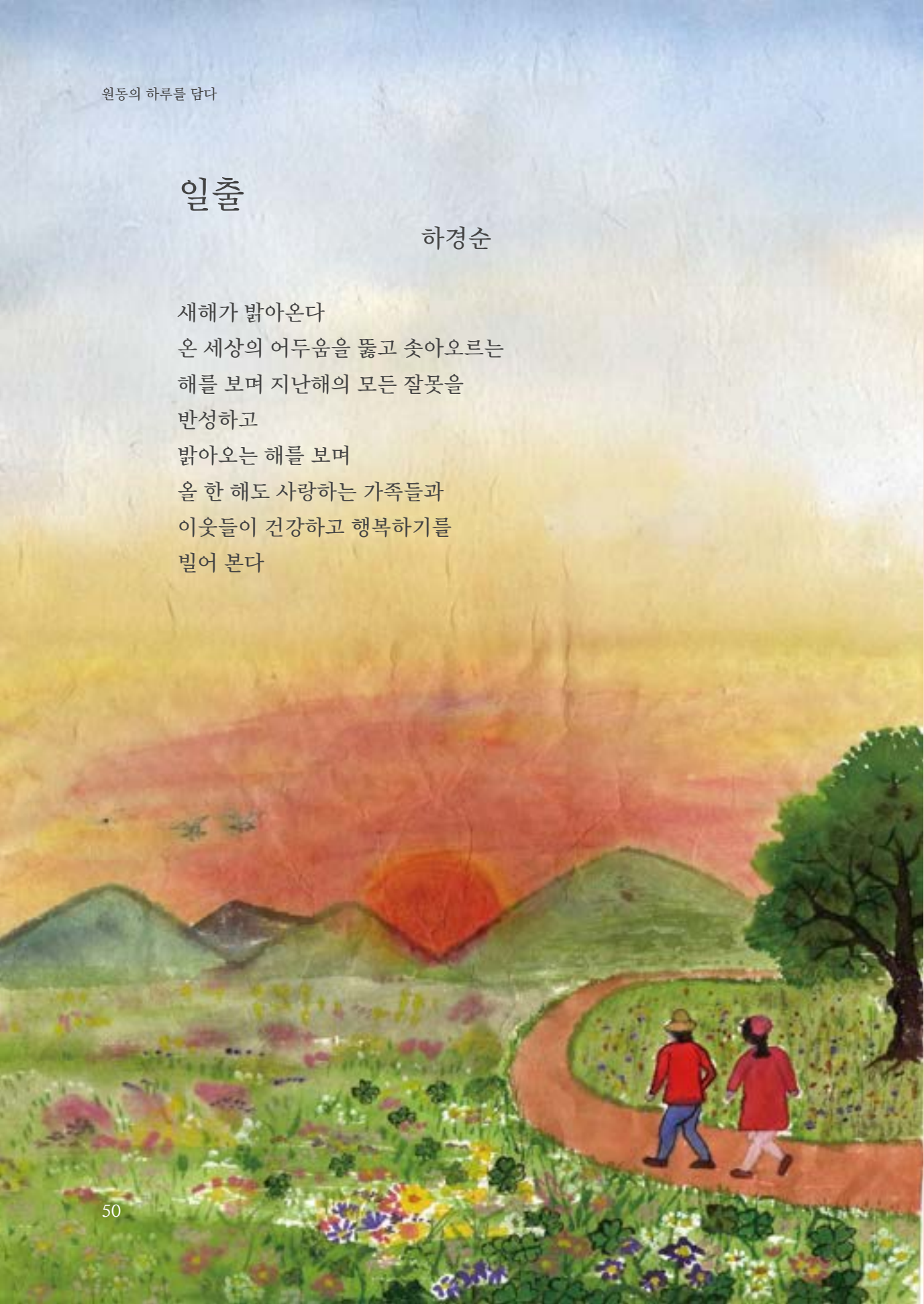


2024년
시화교실 작품

일출

하경순

새해가 밝아온다
 온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지난해의 모든 잘못을
 만성하고
 밝아오는 해를 보며
 올 한 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 본다



어머님 생각

이미순

내 나이 칠십 세 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남들이 많다고 하네
 그리고 거울도 말해 주네
 어머님이 칠십 세 살 때 나도 어머님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었네
 시집가서 함께 살면서 어렵고 두려웠던
 어머님
 나는 지금 어머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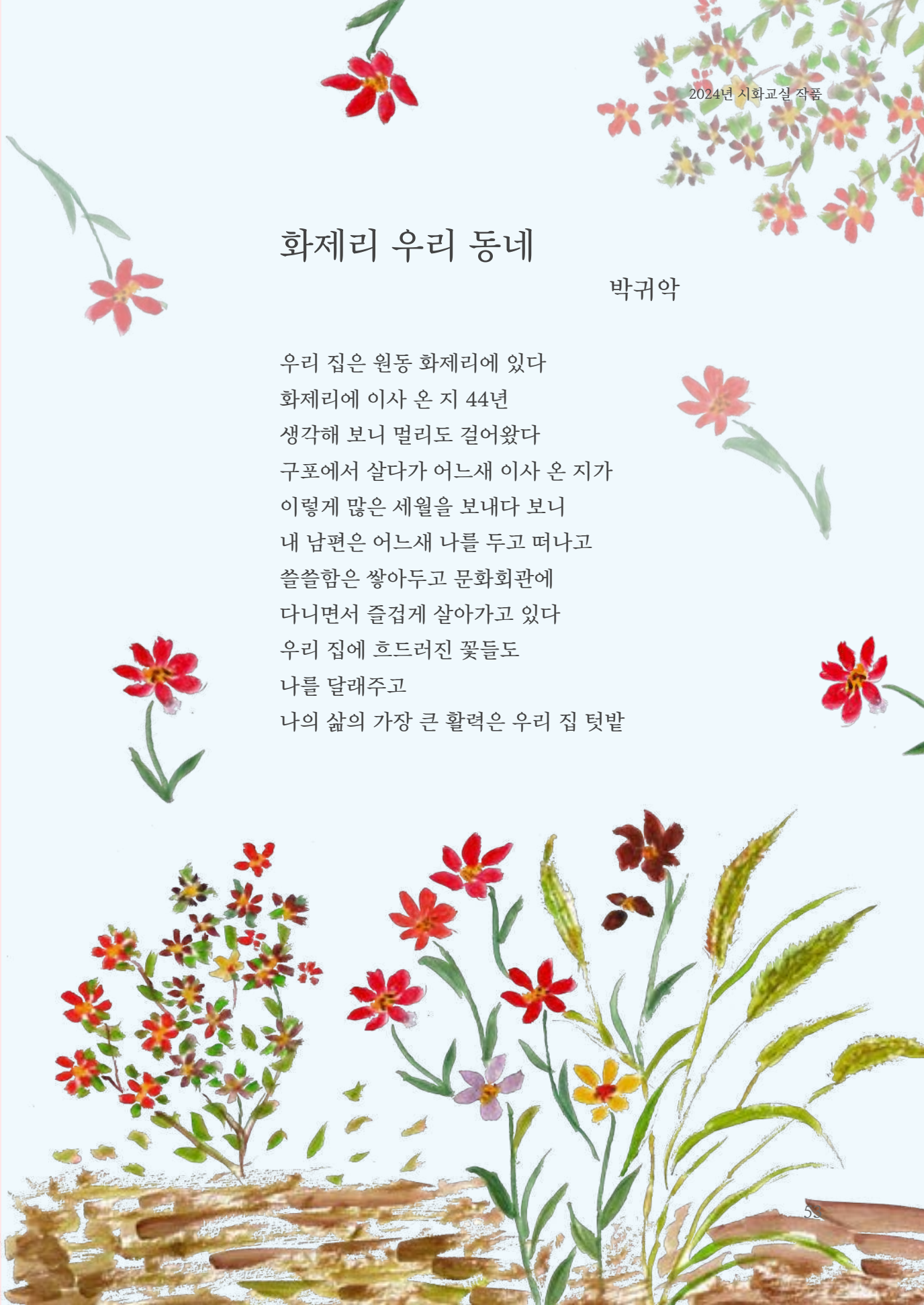




원동매화축제

하경순

봄이 오면 원동은 매화축제로 온 동네가
술렁인다
원동 기차역에서 친구, 친지들이 만나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참 따스하고
아름답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람 사는 모습이
미나리 삼겹살에 옛정이 묻어나고
그래서 원동은 봄이 아름답다



화제리 우리 동네

박귀악

우리 집은 원동 화제리에 있다
화제리에 이사 온 지 44년
생각해 보니 멀리도 걸어왔다
구포에서 살다가 어느새 이사 온 지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내 남편은 어느새 나를 두고 떠나고
쓸쓸함은 쌓아두고 문화회관에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 흐드러진 꽃들도
나를 달래주고
나의 삶의 가장 큰 활력은 우리 집 텃밭

아침 운동

김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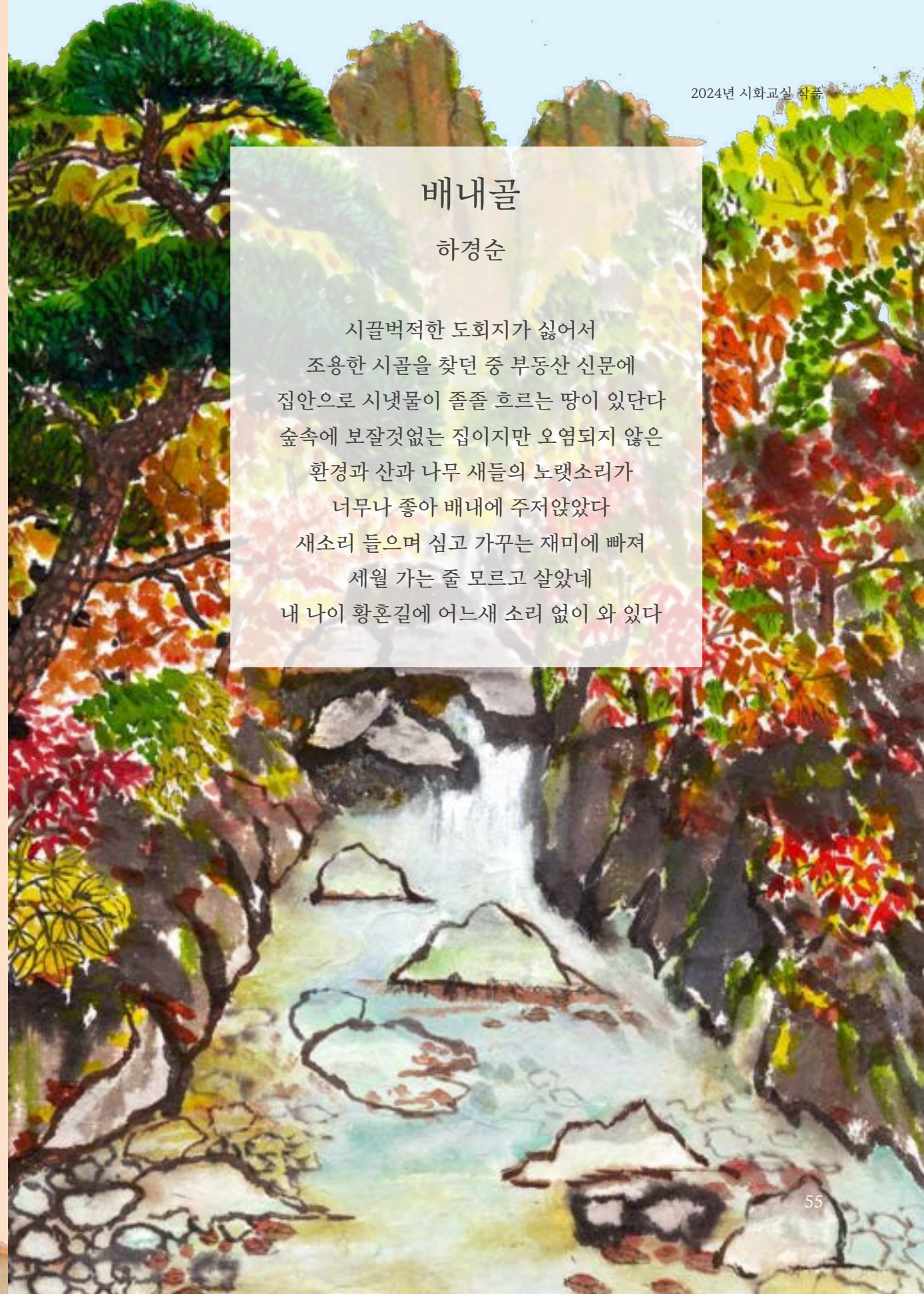
기지개를 켜며 눈을 뜬다. 일어나야지.
 스프르르 눈이 감긴다. 꿈속에서 본 영상이 아른거린다.
 독길의 낙엽과 길가의 코스모스를 생각하며 빨리 가봐야지.
 자리를 박차고 힘을 내 본다.
 새벽 운동한 지 어언 20년
 길을 걸으며 나 혼자 노래도 부르고
 앞에는 산, 옆에는 강물.
 발밑에서 사각거리는 흙의 감촉.
 가을엔 오색 찬란한 단풍도 한뭉치
 봄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벚꽃.
 오늘도 하루를 해냈다.



배내골

하경순

시끌벅적한 도회지가 싫어서
 조용한 시골을 찾던 중 부동산 신문에
 집안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땅이 있단다
 숲속에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산과 나무 새들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좋아 배내에 주저앉았다
 새소리 들으며 심고 가꾸는 재미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네
 내 나이 황혼길에 어느새 소리 없이 와 있다



큰 소나무

조용헌

아름드리 큰 소나무들이 겨울이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이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많구려 공기가 너무 좋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나의 부족한 세월인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지금 자꾸만 죽어만 가는구나
 큰 소나무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가엾어라
 크고 웅장한 큰 소나무가 다 사라질까 봐
 마음도 슬퍼라



꽃밭

황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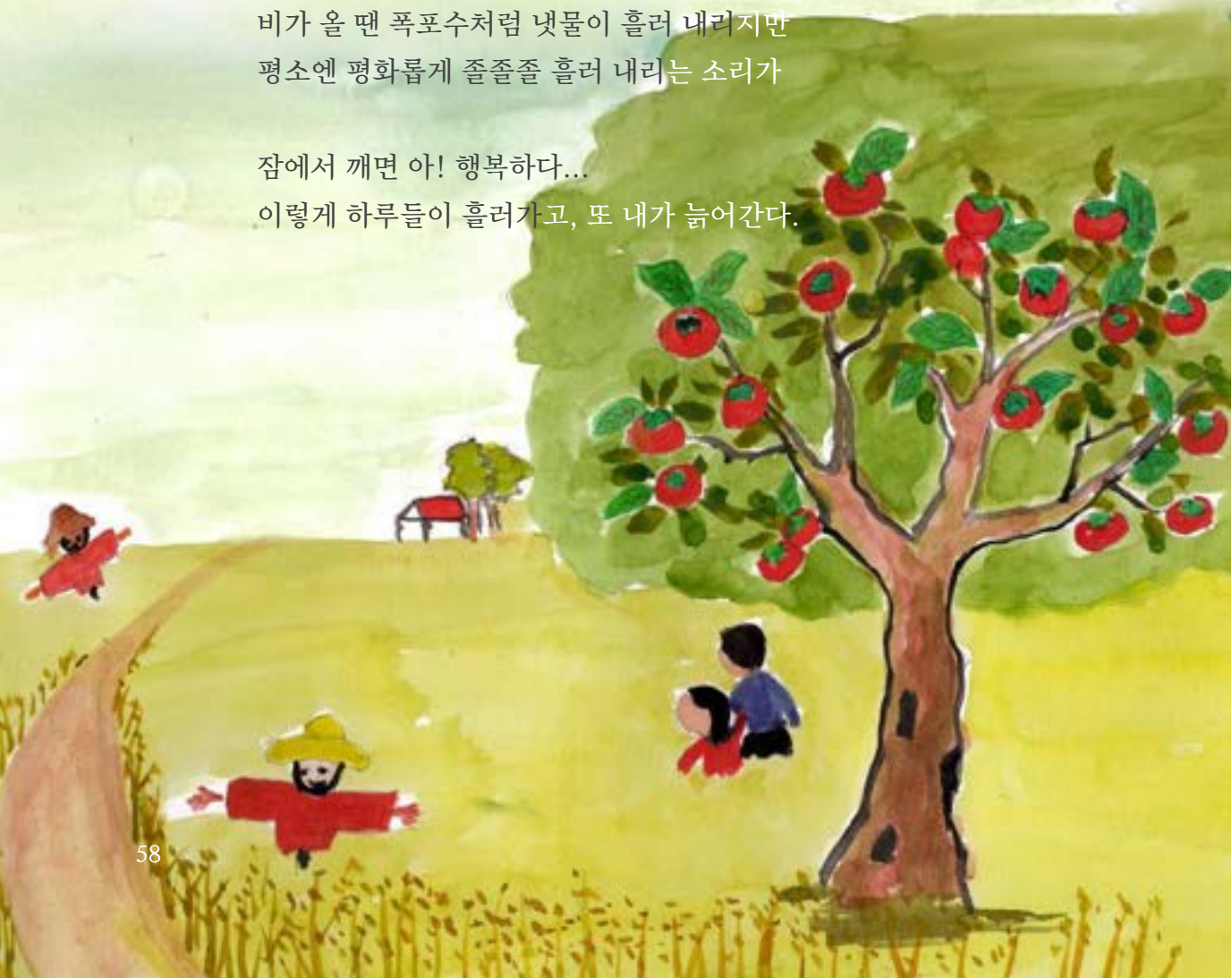
꽃밭 가꾸는 남편
 부지런해서 한시도 놀지않고
 꽃도 사람을 알고 있는지
 봄에 핀 장미꽃이 가을까지 피고있다
 사랑을 주니 꽃도 피니 웃음을 주고
 꽃보다 아름다운 남편
 시들어진 꽃이 떨어지니
 내마음도 아프다
 봄우리가 아직도 맺고있네



나의 집

김기연

나는 집이 없다.
 그러나 내가 살고있는 곳은 있다
 배내골 그리고 통도골
 그러나 처음엔 그곳이 정이 들지 않아 마음은 항상 딴 곳에 가 있었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한곳에 머물고 있다.
 아침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풀벌레들,
 그리고 예쁜 산새들의 울음소리에 흠뻑 젖어 버린다.
 비가 올 땐 폭포수처럼 냇물이 흘러 내리지만
 평소엔 평화롭게 졸졸졸 흘러 내리는 소리가
 잠에서 깨면 아! 행복하다...
 이렇게 하루들이 흘러가고, 또 내가 늙어간다.



그리움

박화순

자연이 가져다주는 대가 없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에
 오늘도 그리움에 젖는다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이 내 마음을
 환희에 차게 한다
 오늘도 유달리 가을 하늘이 청명하게
 내 시야에 들어온다
 앞산과 뜰에 온통 아름다운 풍경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멀리 떠난 내 님 한없이
 그리움이 되어
 아려오는구나



원동의 하루를 담다

발 행 월 2025년 11월

발 행 처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 055-382-9196

홈페이지 <http://ysrrc.or.kr/>

편 집 처 이안커뮤니케이션(주) | 055-264-4627

I S B N 979-11-987980-5-3